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구조와 안정성

이 현 출
국회도서관

•요 약•

이 논문은 유권자의 정당지지의 분석에 있어서 지금까지와 같이 평면적으로 단순선택의 파악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정당지지의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정당지지에는 “선택”으로서의 지지와 “선택의 표출”로서의 지지가 있다. 선택으로서의 지지는 여러 정당 중에서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선택의 표출은 여러 정당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지지는 긍정적 성향일수도 있고, 부정적 성향일수도 있으며, 양자를 모두 포괄하거나 또는 무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 이러한 선택의 태도뿐만 아니라 지지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지강도의 문제 또한 정당지지의 구조에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이와 함께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의 안정성과 그 요인에 대한 고찰은 정당지지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영역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 유권자 의식조사’를 기초로 헌정사상 처음있는 여야간 정권교체의 유권자들의 선택으로서의 정당지지의 변화를 고찰하고, 정당지지의 성향과 강도, 안정성 등 정당지지 규정요인을 분석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구조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유권자 투표행태의 분석개념으로 등장해온 여야성향의 유용성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주제어 : 정당지지, 정당일체감, 여야성향, 균열구조, 투표행태, 지역주의

I. 서론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3당 보수합당의 한 축이었던 자민련이 대선공조를 통하여 새정치국민회의와 함께 공동정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헌정사상 초유의 여야간 정권교체는 그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의 안정성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그 동안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시 평가기제로 작용해온 것으로 평가되어온 여야성향에도 큰 혼란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물론 유권자는 선거과정을 통하여 후보가 소속된 정당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후보자 개인의 자질과 능력에 대한 평가와 이미지를 보고 국정을 운영할 후보와 정당을 선택할 것이다. 그 가운데에서도 유권자의 정당성향과 정당지지는 투표행태를 분석하는데 매우 유용한 개념으로 자리잡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중요성 또한 여러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입증되어왔다. 그러나 한국의 선거연구에서는 정당일체감을 정밀하게 조사한 경험이 축적되어 있지 않고, 또한 그동안 여야성향을 통해 그 개념을 기능적으로 대신해왔기 때문에 누적된 자료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민주화이후 네 번의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총선거, 그리고 세 차례의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의 구조는 어떠한 모습을 보일까에 관해 고찰해보는 것은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정당지지에는 “선택”으로서의 지지와 “선호의 표출”로서의 지지가 있다. 선택으로서의 지지는 여러 정당 중에서 하나의 정당을 선택하는 것이지만, 선호의 표출은 여러 정당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지지는 긍정적 성향일수도 있고, 부정적 성향일수도 있으며, 양자를 모두 포괄하거나 또는 무성향을 보일 수도 있다(황아란 1998). 이러한 선호의 태도뿐만 아니라 지지의 강약을 나타내는 지지강도의 문제 또한 정당지지의 구조에 주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시각에서 출발하여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관련 유권자 의식조사’¹⁾를 기초로 헌정사상 처음있는 여야간 정권교체기의 유권자들의 선택으로서의 정당지지의 변화를 고찰하고, 정당지지의 성향과 강도, 안정성 등 정당지지 규정요인을 분석하여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 구조를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기존에 유권자 투표행태의 분석개념으로 등장해온 여야성향의 유용성과 그 한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어서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의 안정성 정도를 분석하고, 안정성 요인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 유권자의 정당지지의 특성을 고찰하고자 한다.

Ⅱ. 정당지지의 이론

정당지지는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그 접근 또한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정당지지라고 하면 막연히 ‘어느 정당을 응원하는 것’이란 이미지를 떠올릴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응원의 의미는 나라에 따라 각기 다르게 인식되고 있다. 여기서는 정당지지를 크게

1)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가 지방선거 직후 실시한 ‘제3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유권자 의식조사’(2002. 6)를 활용하였다. 표본 수는 1500명이다. 지금까지의 조사결과 연속 4회의 선거에서의 정당지지를 설문한 경우는 이 조사가 처음이다.

미국형, 유럽형, 한국형의 세 가지로 나누어 각각의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먼저 유럽형 정당지지의 메카니즘은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에 의한 사회적인 구조로서의 균열(cleavage)모델에 의해 기본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모델은 사회내의 구조적 균열의 각각의 측면에 그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하며, 유권자는 각기 자신들과 연계가 있는 정당을 지지한다는 투표행태를 말한다. 대표적인 사회적 균열로서는 국민혁명에 의해 형성된 '중심-주변'균열, '정부-교회'간의 '종교적' 균열, 산업혁명의 결과 생겨난 두 가지의 균열, '도시-농촌'균열과 자본과 노동간의 '계급적'균열의 크게 네 가지의 균열을 상정하고, 이것들에 의해 정당체계 및 정당-지지자간의 관계가 동결된다는 이론이다.

이 모델에서는 유권자와 지지정당의 관계는 상당한 정도 고정화(동결)되어 있어 지지정당과 선거에서의 투표정당과의 일치도가 높다. 바꾸어 말하면, 많은 유권자에게 있어서 지지정당이라는 것은 선거에서 항상 투표하는 정당이라고 이해될 수 있다. 또한 유권자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라 당파성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양당제 국가이지만, 상대적으로 공화당이 보다 보수적이고 민주당이 보다 진보적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양당간에는 현저한 이데올로기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아니며, 또한 그러한 대립은 사회적 균열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미국의 정당지지에 해당하는 개념은 정당일체감(party identification)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당일체감은 미국의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주요한 요인으로서 미시간 대학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개념이다. 그 때문에 종종 미시간 모델이라고 불려지고 있으며, 이 모델에 따르면 정당일체감은 “자신이 선택하는 정당에 대해서 갖고 있는 개인적인 애착심 또는 귀속의식”이라고 정의되고 있다(Cambell, Converse, Miller and Stokes 1960). 따라서 정당일체감은 유권자가 정치적 사물을 접할 때 ‘인식의 선별기제’(perceptual screen)로 작용하게 된다(박찬욱 1993, 71). 미시간 모델에 따르면 사람들은 인생의 초기단계에, 통상은 자신들의 부모로부터 배움으로써 정당일체감을 형성하고, 성장함에 따라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그것을 점점 보강해 간다. 그런 의미에서 정당일체감의 형성은 신앙심의 형성과 아주 흡사하다(Knoke 1990). 미시간 모델이 갖는 함의는 정당일체감이 상당히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들과 동일시하고 있는 정당을 그렇게 간단히 바꾸지 않는다고 하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따라서 미시간 모델은 정당일체감을 외재적 변수, 즉 다른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투표에 관련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로서 다루어 왔다(Stokes 1966).

그러나 미시간 대학 연구자들이 주장한 정당일체감의 안정성은 집합자료 분석이나 패널조사를 포함한 이후의 연구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비판을 받은 적이 있다. 1945년과 1987년의 갤럽여론조사를 활용해 맥퀸 등은 민주당에 일체감을 가진 미국인의 비율이 변화한 것을 검증한 바 있다(MacKuen, Erikson and Stimson 1989). 그러나 이러한 거시적 정당선호도(Macropartisanship)가 변한다는 주장은 이후에 많은 비판을 받았고, 결국 미시간 학파의 주장과 같이 거시적·미시적 정당선호도는 안정되어 있다는 것이 학자들의 일반적인 주장이다(Abramson and Ostrom 1991).

한편 정당간의 빈번한 이합집산과 잦은 명칭변경이 이루어져온 한국의 경우 미국과 같은 정당일체감을 갖는 것이 힘든 현실이라는 점이 지적되어 왔다. 그래서 미국의 정당일체감과 기능적 대등성(functional equivalence)을 갖는 개념으로 여야성향을 들고, 이를 통해 한국 유권자의 정당관련 준거로 삼고자 하였다(조중빈 1993; 박찬욱 1993). 이들에 따르면 여야성향은 유권자의 심층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여타의 정치적 태도와 행위를 규제하는 '요약적 심리정향'(psychological predisposition)으로 이해되고 있다. 즉 이러한 성향은 정당일체감과 같이 장기간에 걸쳐 학습된 것으로서 일생을 통하여 쉽게 변하지 않는 특징을 갖는다고 가정하고 있다. 즉, 개별정당이 부침하고 정권의 변동이 빈번하여도 유권자는 '여', '야'라는 체계화된 기준을 바탕으로 정치를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체계화된 기준은 생애의 한 시점에서 일시에 획득되는 것이 아니고, 사회화과정을 통하여 장기적으로 습득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조중빈 1993, 53).

그러나 이러한 여야성향은 기존의 여와 여, 야와 야 사이의 이합집산과는 달리 여야간의 통합을 가져온 1990년 3당통합으로 유권자에게 상당한 정도의 혼란을 가져왔다고 보여진다. 특히 1997년 대통령 선거를 통해 여야간 정권교체가 이루어짐으로 인하여 여야성향이 지속되기보다는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한나라당이 여당이었던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의 여성향과 한나라당 후보지지간의 상관관계가 양(+)을 보이다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던 1998년 지방선거 당시의 조사결과에서는 음(-)을 보임을 밝혀내고 있다(김재한 1999, 139). 결과적으로 여야성향은 장기적 내면적으로 형성된 심리정향의 표출이 아니라 조사당시의 여야에 대한 지지도와 일치하는 면이 크며, 따라서 정당일체감과 같은 정파적 개념이고, 자신이 지지하는 정파가 여당이냐 야당이냐에 따라 자신의 여야 성향이 바뀐다고 볼 수 있다(김재한 1999). 이러한 결과는 여야의 구분이 기존 미국의 정당일체감 보다는 신념체계(belief system)와 유사한 속성을 갖는다고 보는 견해와는 대립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여야성향 개념의 적실성 논쟁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한다.

상대적으로 강한 민족적 정체성과 문화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하며, 이데올로기 대립

또한 한국전쟁 이후에는 정치갈등의 축이 되지 못했던 한국의 상황에서 정치갈등은 집권 세력과 이에 대항하는 세력간의 대결, 즉 여야 대립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정권교체가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여야성향은 하나의 정치적 정향을 갖는 의미로 자리잡게 되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서 정권경쟁으로 출발한 여야대립은 점차 민주주의를 쟁점으로 한 갈등으로 전환되어 갔다(김만흠 1996).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야당은 민주화라는 메시지로, 여당은 안정이라는 메시지로 유권자에게 호소하였으며, 민주화는 도시에서, 안정은 농촌에서 호소력을 갖게 되어 이른바 여촌야도의 투표행태가 등장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정치적 갈등의 축은 민주화, 즉 절차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이었다. 이러한 논의는 실증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여야성향은 정치체제의 민주성에 대한 평가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밝혀내고 있는 데에서도 알 수 있다(조중빈 1993).

그러나 6·29선언 이후의 민주화 국면에서 13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역균열에 바탕한 4당체제가 등장하였고, 기존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여야대립이 점차 사라지고 지역주의의 균열이 정당체계를 가르는 중심축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사회내의 구조적 균열의 각각의 측면에 그 이익을 대표하는 정당이 존재하며, 유권자는 각기 자신들과 연계가 있는 정당에 투표한다고 하는 사회균열(social cleavage) 모델(Lipset and Rokkan 1967)에 기초한 정당지지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결국 한국의 정치대립이 민주화 이전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둘러싼 쟁점 대립과 6·29이후 지역을 축으로 한 사회적 균열에 기초한 대립이 중심이 되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투표행태의 독립변수로서의 여야성향은 그 설명의 유용성에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Ⅲ. 정당지지의 성향과 강도(強度)

1. 정당지지 성향

정당지지라고 하더라도 그 속에는 당연히 지지성향과 반대성향, 그리고 양자를 동시에 갖는 복합성향, 또는 긍정 또는 부정의 선호를 보이지 않는 무성향 등으로 나눌 수 있다(황아란 1998). 황아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정당성향의 차이에 따라 선거관심 등 정치적인 태도의 차이뿐만 아니라 투표참여 및 후보선택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우선 조사결과 나타난 성향별 빈도수를 보자. 아래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단순히 어느 한 정당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반응만을 보인 지지성향과 반대성향

의 유권자보다 어느 한 정당에는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다른 정당에는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복합성향의 소유자가 56.1%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무성향도 19.3%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정당지지 성향

	지지성향	반대성향	복합성향	무성향
빈도(%)	220(14.7)	150(10.0)	842(56.1)	289(19.3)

이러한 지지성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의 <표 2>와 같다. 선호하는 정당이 한나라당이라고 응답한 자들(583명)은 가장 싫어하는 정당으로 민주당(270명/46.3%), 자민련(150명/25.7%), 싫어하는 정당 없음(124명/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선호하는 정당이 민주당이라고 응답한 자(318명) 가운데 가장 싫어하는 정당으로는 한나라(168명/52.8%), 자민련(62명/19.5%), 싫어하는 정당 없음(72명/22.6%)의 순으로 나타났다. 선호하는 정당이 없다고 한 응답자(434명)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정당으로는 한나라(58명/13.4%), 민주당(41명/9.4%) 자민련(41명/9.4%), 그리고 싫어하는 정당도 없다고 한 응답자(289명/66.6%) 순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진 것은 한나라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자 중에는 싫어하는 정당이 민주당과 자민련으로 나뉘어 있으나, 민주당을 선호한다고 응답한 자들 중에는 한나라당을 싫어하는 정당으로 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정당지지성향 교차표

		지지정당						
		한나라	민주당	자민련	민노당	기타정당	없음	전체
반대 정당	한나라	2	168	6	34	3	58	271
	민주당	270	1	11	13	2	41	338
	자민련	150	62	1	20	4	41	278
	민노당	11	6	1		2		20
	기타	26	9	4	1	4	5	49
	없음	124	72	7	9	7	289	508
	전체	583	318	30	77	22	434	1464

이와 함께 정당지지성향에 따라서 선거에 대한 관심과 후보선택 및 지지의 안정성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표 3> 참조 먼저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보았다.

자치단체장 선거에 대한 관심도를 알아본 결과 선호하는 정당과 싫어하는 정당을 모두 지니고 있는 복합성향의 유권자는 '매우 높았다'는 응답이 25.9%로 다른 성향의 유권자보다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지지성향의 유권자가 반대성향이나 무성향의 유권자보다 관심이 많았던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무성향의 경우 관심이 없었다는 응답이 57.8%(별로 없었다와 전혀 없었다 포함)에 이르고 있어 무성향의 유권자보다는 반대성향의 유권자가 관심이 높고, 또 이들보다는 선호하는 정당이 있는 경우가 더욱 높으며, 그 중에서도 복합성향의 경우가 더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어서 지지후보 결정시기에 대해 고찰해보자. 일반적으로 지지성향이나 복합성향을 가진 유권자는 반대성향이나 무성향의 유권자 보다는 일찍 지지후보를 결정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며, 반대성향 층 또는 무성향 층은 선거일에 임박해서나 당일에 대안 또는 차선의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분석결과 복합성향의 응답자가 3주 이상 전에 결정했다는 응답이 28.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역으로 투표 당일 결정했다는 응답은 무성향이 33.0%, 반대성향이 26.5%로 높게 나타나 정당지지 성향이 투표결정 시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정당지지성향과 정당지지의 안정성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복합성향의 응답자가 정당지지의 안정성이 강한 것을 보여주고, 무성향의 응답자가 지지정당을 자주 바꾼 것으로 나타나 안정성이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3〉 정당지지 성향과 투표행태

		지지성향	반대성향	복합성향	무성향	$\chi^2(p)$
선거 관심도	매우 관심	20.5	8.1	25.9	13.8	72.558 (.000)
	조금 관심	37.0	32.2	36.7	28.4	
	별로 관심	35.6	41.6	29.5	41.2	
	전혀 무관심	6.8	18.1	7.8	16.6	
투표 결정시기	투표당일	14.7	26.5	14.9	33.0	55.114 (.000)
	1~3일전	27.0	31.3	21.1	15.3	
	1주전	25.2	19.3	21.8	21.6	
	2주전	9.2	6.0	7.9	8.0	
	3주전	5.5	1.2	5.7	3.4	
	3주이상전	18.4	15.7	28.6	18.8	
정당지지의 안정성	4회연속 동일정당	9.2	9.0	14.1	5.6	130.002 (.000)
	3회 동일정당	36.9	27.1	42.8	15.3	
	2회 동일정당	26.2	28.6	24.3	29.0	
	지지정당 변경	27.7	35.3	18.8	50.0	

2. 정당지지 강도

한편 정당지지의 강도를 고찰하여 보자. 정당지지의 강도는 먼저 선호하는 정당의 선호도의 평균을 통해 비교해 보고자 한다.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각 정당의 지지강도를 보면 10점 척도에서 자민련이 7.33으로 가장 높고, 민주당이 6.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으며, 한국유권자들의 정당 지지강도는 낮은 수준이 아님을 알 수 있다(<표 4> 참조).

〈표 4〉 정당선호도 평균

	평균	표준편차	N
한나라당	6.72	2.05	590
민주당	6.32	2.18	327
자민련	7.33	2.34	30
민노당	7.00	2.35	78

지지강도는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선호한자와 무당파층으로 나누어 양당에 대한 호감도를 10점 척도로 알아보았다(1-5 약한지지, 6-10 강한지지). 지지강도를 5점단위로 강한지지와 약한지지로 나누어보면 양당 공히 강한지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표 5〉 정당지지 강도의 분포

강한 한나라당	약한 한나라당	무당파	약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431(31.8)	159(11.7)	439(32.4)	111(8.2)	216(15.9)

이하에서는 정당지지와 관계있는 몇가지 변수와 정당지지 강도와의 관계를 알아보자. 먼저 이념성향을 알아보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크게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는 보수적이고 민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가 한나라당을 선호하는 유권자보다 진보적임을 알 수 있다. 즉 한나라당 선호자는 유권자 전체의 평균인 3.06보다 보수쪽으로, 민주당 선호자는 유권자 전체의 평균보다는 진보쪽으로 기울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무당파층이 이념상으로는 양당 지지자보다 진보적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 동일 정당을 선호하더라도 강도에 따라서 약간의 이념성향의 차이가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다. 즉, 강한 한나

라당 층은 약한 한나라당 층보다 더 보수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반면 강한 민주당 층은 약한 민주당 층보다 약간 보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음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4년간의 치적에 대한 평가를 비교해 보았다. 대통령 치적에 대한 평가는 같은 정당을 선호하더라도 선호강도에 따라 뚜렷하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강한 한나라 층은 전체 평균 2.36에 훨씬 미달하는 1.99로 낮게 평가하고 있으며, 약한 한나라 층은 강한 한나라 층보다는 다소 후하게 평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민주당 선호자들 가운데에서는 약한 민주당 층보다는 강한 민주당 층에서 보다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무당파층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선호자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정당 지지가 정당지도자에 대한 충성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볼 때, 민주당 지지자들중 강한 민주당 층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약한 민주당 층보다 강함을 알 수 있다. 반면 한나라당 선호자들은 한나라당에 대한 선호강도가 강할수록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이 강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주의가 정치인에 대한 충성도와 지역간 거리감을 근간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기존의 연구(이남영 1998; 강원택 2003, 227-231)와 맥을 같이 한다.

〈표 6〉 정당지지강도에 따른 정치적 태도의 차이

항 목	구 분	강한 한나라	약한 한나라	무당파	약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ANOVA
이념의 차이	평균	2.70	2.94	3.27	3.20	3.12	F=16.230 p=.000
	표준편차	1.05	1.02	1.00	.92	.98	
	N	385	136	342	102	195	
대통령 치적 평가	평균	1.99	2.19	2.39	2.78	2.95	F=80.519 p=.000
	표준편차	.68	.69	.70	.61	.62	
	N	411	143	364	105	205	

다음으로 지지강도에 따른 투표행위에서의 차이를 고찰해보자. 먼저 투표여부에 대해 분석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정당선호 강도가 강한 층이 약한 층보다 투표율이 높을 것이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방선거 조사결과에서도 강한 한나라당층과 강한 민주당 층이 약한 선호도를 보이는 층보다 10% 이상 투표율이 높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보여주고 있다($p<.001$). 반면 무당파층이 가장 투표율이 낮고 기권율이 41%에 이르고 있다. 이들은 기존 정당에 대한 선호도가 없기 때문에 인물을 보고 투표하거나 선거가 가까워 오며 따라 차선의 선택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7〉 정당지지강도와 투표행태

항 목	구 분	강한 한나라	약한 한나라	무당파	약한 민주당	강한 민주당	$\chi^2(p)$
투표 여부	투표	83.3	71.1	59.0	65.8	76.4	67.379
	기권	16.7	28.9	41.0	34.2	23.6	(.000)
지지정당	한나라당	42.8	52.5	35.2	36.2	32.5	44.403 (.000)
	민주당	23.3	17.2	15.8	11.7	21.1	
	기타정당	6.0	5.7	4.5	2.1	3.6	
	기권	28.0	24.6	44.5	50.0	42.8	

* 자민련, 민주노동당, 사회당, 한국미래연합, 녹색당, 무소속 등은 기타정당 처리

다음으로 정당 지지강도에 따른 후보지지 패턴을 알아보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나라당 지지층은 민주당 지지층이나 무당파층보다 기권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주당 지지층은 강한 민주당층이 42.8%, 약한 민주당 층이 50.0%의 기권을 보여 대조적이다. 민주당 지지층의 경우 정치적 불만족에 대한 대안을 한나라당 또는 제3당에서 찾는 대신 기권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지지층의 경우 정치적 불만족의 표현으로 민주당을 대안으로 찾거나(강한 한나라 23.3%, 약한 한나라 17.2%),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기권을 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무당파층은 선거가 임박해 기존 양대정당에 투표하거나 기권을 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IV. 정당지지의 변화와 안정성

1. 한나라당 지지의 변화

먼저 한나라당 지지의 궤적을 살펴보자. 한나라당은 1997년 정권교체 이전까지는 명칭 변경과 이합집산은 있어왔지만 40여년간 줄곧 여당의 입장을 지켜왔다. 물론 한국 정당의 특성상 많은 정당의 등장과 포말화가 있었고, 또 정당간 합당 등의 요인으로 여야간의 통합이 있었으나 기본적으로 여당의 입장을 유지해온 정당이다. 1997년 대통령 선거는 헌정사상 최초의 정권교체로 인하여 이러한 여야성향의 안정성을 깨뜨렸다. <그림 1>과 <그림 2>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부터 2002년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약 6년간에 걸친 한국유권자의 정당지지의 변화를 추적한 것이다. 기술의 간명함을 위해 4회 모두 선

거에 참여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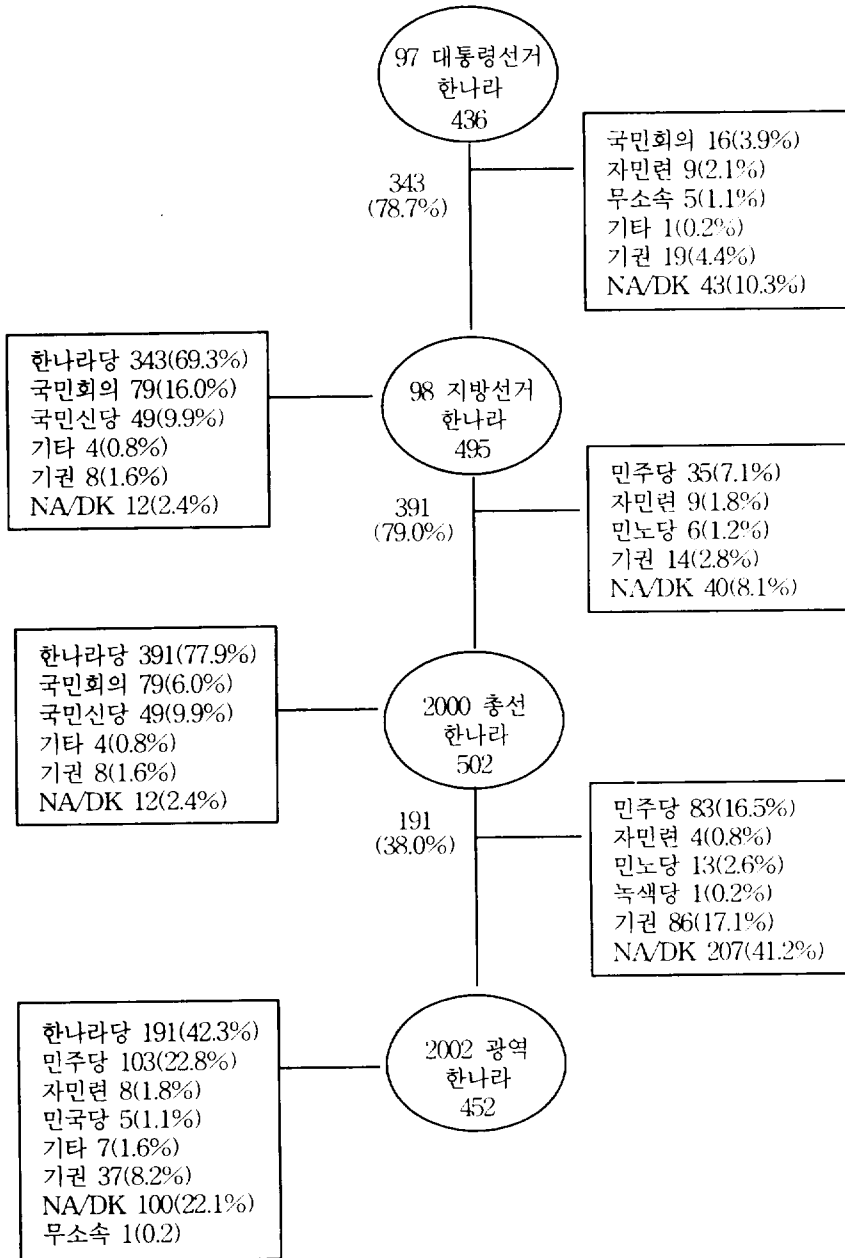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자, 즉 이회창 후보지지자는 436명으로 유효투표율의 29.1%를 기록하고 있다. 그 중 78.7%인 343명이 이듬해인 1998년의 지방선거에서 광역단체장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으로 3.7%(16명), 자민련으로 2.1%(9명), 무소속으로 1.1%, 기권이 4.4% 등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교체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높은 비율의 지지자의 지지가 계속된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1998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자들은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이회창 지지자가 69.3%(343명)을 차지하고, 김대중 지지자가 16%(79명), 이인제 지지자가 9.9%(49) 등으로 나타났다. 그 외 기타정당 지지자, 기권자 또는 신생 유권자나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유권자들 중에서 4.8%정도가 옮겨온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 여당을 지지한 유권자 중에서 약 70%가 1998년 지방선거에서 야당을 지지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나라당에 대한 '지지 계속'을 보인 유권자들은 여당 성향으로 장기간 사회화된 신념체계가 아니라 한나라당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지지성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1998년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으로 한나라당 후보를 지지한 495명의 표본중 391명(79.0%)이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지지 계속'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의 '지지 이탈'은 민주당으로 7.1%(35명), 자민련 1.8%(9명), 민주노동당 1.2%(6명), 기권 2.8%(14명), 기타 응답 거부자 또는 신생 유권자 등으로 나타났다. 1998년에 이어 2000년에도 지지자의 79%가 지지를 계속해 온 것으로 나타나 안정된 '지지계속'율을 보여주고 있다.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전체 502명의 한나라당 지지자중에서 77.9%(391명)가 1998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였으며, 국민회의 지지자가 6.0%(79명), 국민신당 지지자가 9.9%(49명), 기타 정당, 기권자 '모르겠다'고 응답한 자 중에서 4.8%(24명)가 지지를 이탈해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 2002년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일부지역에 광역단체장 후보를 내세우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례대표 정당투표의 투표정당(한나라당 29.0%, 새천년민주당 13.6%, 모름/무응답 21.9%)과 광역단체장 투표후보 소속정당(한나라당 30.2%, 새천년민주당 14.6%, 모름/무응답 22.3%)의 빈도수를 비교한 결과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도 광역단체장 지지정당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그림 1〉 한나라당 지지의 궤적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의 지지계속자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지금까지 두차례의 선거에서는 79%대의 높은 지지계속율을 보여 주었으나, 2002년 지방선거에서는 38.0%(191명)에 머물고 있다. 한편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중 16.5%(83명)가 한나라당을 이탈해 민주당으로 옮겨간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기권자가 17.1%(86명), '모르겠다'는 응답이 41.2%(207명)로 이들은 '지지 유보'로 나타났다. 결국 기존 한나라당 지지자의 약 62%가 지지를 변경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2002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한나라당 지지자는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한나라당 지지자가 42.3%(191명)를 차지하고, 그 외는 민주당 지지자가 22.8%(103명), 기타정당 지지자가 4.7%(21명), 기권자가 8.2%(37명), 무응답자나 신생 유권자로부터 22.1%(100명)가 새로이 한나라당 지지로 옮겨온 것을 알 수 있다.

2. 민주당 지지의 변화

이상에서 지난 네 번의 선거를 통해 한나라당 지지의 궤적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민주당 지지의 궤적을 살펴보자.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김대중후보의 득표는 유효 표본의 39.5%를 점하는 592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지자들은 1998년 지방선거의 광역단체장 지지에 있어서는 51.5%(305명)가 '지지계속'으로 이어지고, 한나라당 13.3%(79명), 자민련 5.9%(35명), 무소속 1.7%(10명), 기타정당 1.2%(7명)로 전체 22.1%가 '지지 이탈'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26.3%(156명)가 각각 기권 7.4%, 무응답 18.9% 등으로 '지지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 국민회의 지지자가 줄어든 것은 1997년 대통령선거 당시 DJP연합에 의한 강화된 지지가 지방선거에서 자민련이 독자적인 후보를 냈으로써 지지의 크기가 약화된 것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199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자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의 민주당 지지자가 305명으로 88.4%를 차지하고, 한나라당 지지자로부터 16명(4.6%), 국민신당 지지자로부터 11명(3.2%), 기타 정당, 기권자 및 무응답자로부터 13명(3.9%)이 이탈하여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1998년 지방선거에서의 민주당 지지자중 88.4%는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야당을 지지하였으나 1998년에는 여당을 지지한 셈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야당성향으로 뿌리깊게 무장한 유권자들이 아니라 새정치 국민회의에 대한 강한 연대감으로 연계된 유권자인 것이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배경은 이후에 고찰하여 보겠지만 이들은 여야성향을 투표의 판단기준으로 삼았다기 보다는 오히려 사회와 정당간의 연계가 나

를대로 굳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오히려 1997년 대통령 선거당시 김대중 후보를 지지했다가 1998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지지 이탈'한 79명은 야당성향의 투표를 했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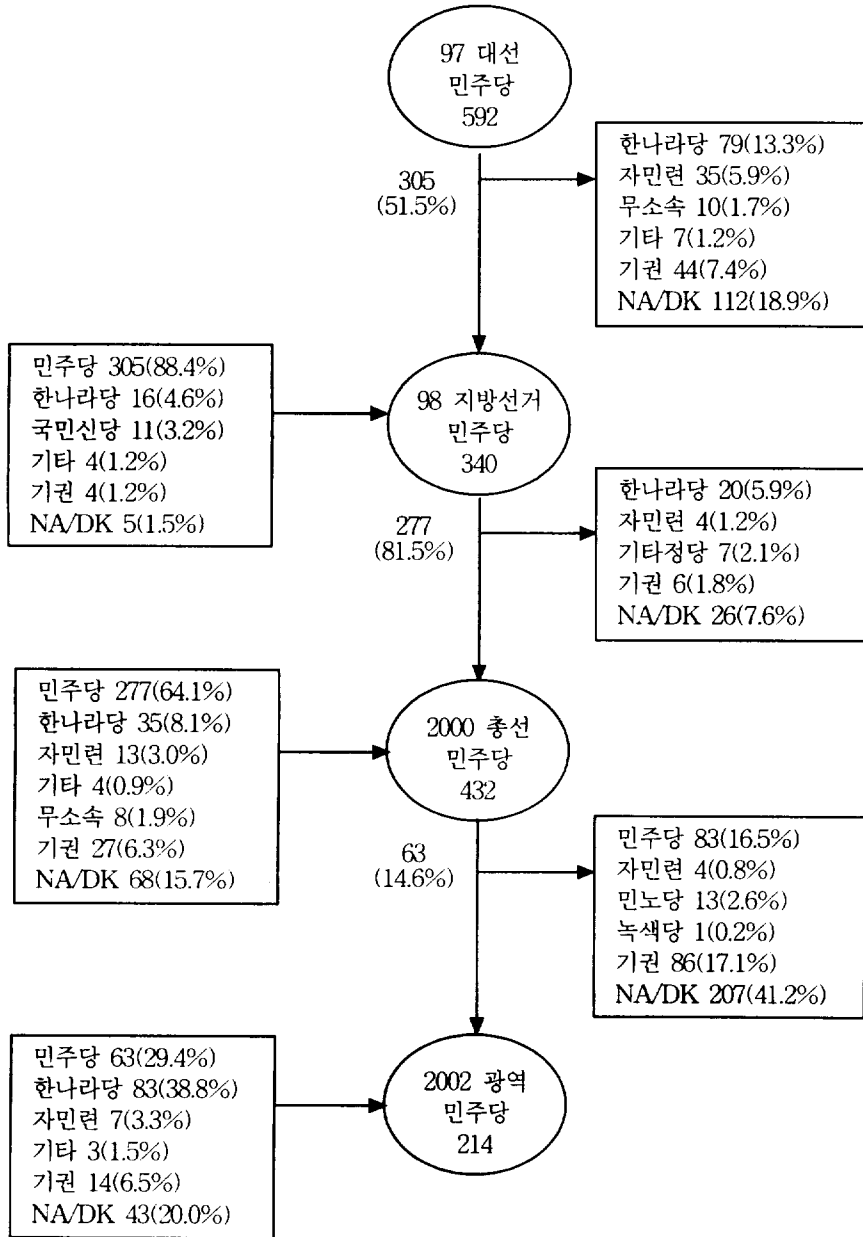
한편 1998년 민주당 지지자중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81.5%(277명)가 '지지 계속'으로 이어졌다. 이것은 1997년 김대중 지지자중 1998년 광역단체장에서 민주당 '지지 계속'으로 이어진 51.5%와 비교할 때 아주 높은 비율임을 알 수 있다. 그 외에 한나라당으로 5.9%(20명), 자민련 및 기타 정당으로 3.3%(11명)가 '지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기권, 무응답 등으로 9.4%(32명)가 '지지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흥미로운 것은 1997년 김대중 지지자 중에서 1998년 지방선거에 지지계속으로 이어져온 비율은 51.5%에 불과했으나, 1997년 김대중 지지자의 2000년 총선으로의 지지계속은 83.1%(359명)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³⁾ 이러한 현상은 국정선거와 지방선거에서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 달리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지방선거에서는 기존 민주당 지지자들이 갖고 있던 지도자 김대중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간 대결의식이 약해지고, 이것이 다시 국정선거에서 부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민주당 지지자는 432명으로 그 중에서 199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을 지지하고 '지지계속'으로 이어진 유권자가 64.1%(277명)를 차지하고, 그 외에 한나라당 8.1%(35명), 자민련, 기타 정당, 무소속 등으로부터 '지지이탈'한 층이 5.8%(25명)에 이른다. 아울러 기권, 무응답 층으로 부터 각각 6.3%, 15.7%가 지지를 옮겨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 민주당 지지자의 '지지계속'율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000년 총선에서 민주당을 지지한 432명중에서 민주당 '지지계속'으로 이어진 유권자는 14.6%에 불과하며 이는 이전 선거에서 81.5%가 '지지계속'으로 이어진 것과 크게 대조를 이룬다. 특히 한나라당으로의 '지지이탈'이 민주당으로의 '지지계속'보다 높은 16.5%(83명)을 차지한다는 것은 돌보인다. 그 외에도 자민련, 민주노동당, 녹색당 등으로 3.6%(18명)가 이탈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 외에 기권 또는 '모르겠다' 등으로 '지지유보'를 보인 층이 각각 17.1%, 41.2%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주당이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충청지역과 대구·울산 지역에 후보를 내지 못한 점에 일차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선거후 조사라는 점과 당선자 편에 서려는 유권자의 심리가 반영된 결과로 다소 민주당 지지가 과소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3) 그 외에 이회창 지지자로부터 22명(5.1%), 이인제 지지자로부터 23명(5.3%), 기타후보로부터 7명(1.7%), 기권·무투표권·모름·무응답자로부터 21명(4.8%)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민주당 지지의 궤적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이 급격히 하락하여 214명에 그치고 있다. 그 구성은 민주당으로부터의 지지계속자 29.4%, 한나라당으로부터의 지지이탈자

38.8%(83명), 자민련과 기타 정당으로부터의 지지이탈자 4.8%(10명), 그 외에 기권자로부터 14명, 무응답 층이나 신생 유권자 등으로부터 43명이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2002년 지방선거는 김대중 정권의 부패정치 등으로 민주당 지지가 최악의 저조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한편으로는 민주당과 한나라당간 정당지지의 이탈이 어느 선거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와 같은 국정선거와 지방선거간의 비중의 차이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이 우선 지적될 수 있다. 즉 정당측은 정당간의 대결국면으로 선거를 몰아가려고 하지만 지방선거는 지방의 일꾼을 뽑는 선거이기 때문에 국정선거 보다는 정당의식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노무현이란 인물을 앞세운 민주당의 지방선거 캠페인에서는 기존의 김대중에 대한 충성도가 약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낮은 투표율도 이러한 현상을 반증한다고 볼 수 있다. 한편으로는 업적에 대한 만족도가 정당일체감을 변경할 수 있다는 논의(Fiorina 1981)와 같이 김대중 정권의 국정수행에 대한 만족도와 만연한 정치부패 등으로 유권자의 정치불신이 팽배해져 이것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 이탈을 초래하고 낮은 지지계속율을 보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각 정당이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를 선출한 가운데 이들이 선거전의 전면에 등장함으로 인하여 기존 정당과 지도자간의 일체감이 흔들렸으리라는 추론이 가능하다.

3. 정당지지의 안정성과 유동성

1) 정당지지의 안정성 비교

지금까지 한나라당과 민주당을 중심으로 그 지지의 변동을 분석해 보았다. 이제 이들 양당의 지지의 안정성을 비교 분석해보고자 한다. <표 8>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그리고 기권층의 지지의 안정성을 분석한 것이다. '적어도 한번 지지'는 적어도 한번 각각의 정당을 지지하거나 또는 기권한 유권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표본 중에서 적어도 한번은 한나라당을 지지한 비율은 85.9%를 차지하고, 적어도 한번 민주당을 지지한 비율은 95.24%이다.

두 번째 란은 특정 정당을 일관해서 지지하고 있는 응답자의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한나라당이 안정적 지지자가 가장 많은 정당으로 4회 연속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의 비율이 14.1%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4.76%로 보다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항시 기권하는 비율도 1.43%로 나타나고 있다.

〈표 8〉 정당지지의 안정성

(%)

	한나라	민주당	기권
적어도 한번지지(X)	85.9	95.24	98.57
항상 동일정당지지(Y)	14.1	4.76	1.43
안정성 지수(X/Y)	6.09	20.01	68.93

세 번째 란은 정당지지의 안정성을 효과적으로 비교하기 위해 안정성 지수를 비교해 보았다. 안정성은 한번이라도 어느 정당을 지지한 적이 있는 사람들의 비율(X)과, 어느 정당을 연속적으로 지지한 사람들의 비율(Y)의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안정성 지수는 X/Y 에 의해 산출된다. 즉 이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는 안정되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결국 한나라당 지지의 안정성이 민주당 지지의 안정성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한나라당 지지자는 오랫동안 여당으로서 나름대로 지지의 안정성을 일정부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회창이라는 정당의 지도자가 1997년 대통령 선거이후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을 대표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의 경우는 김대중에 대한 지지와 민주당에 대한 지지가 대통령 당선이후 크게 흔들리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국정선거의 경우에는 그 지지가 유지됨을 볼 수 있으나, 지방선거의 경우, 특히 2002년 광역단체장 선거의 경우에는 정부에 대한 만족도 등이 겹쳐 정당지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노무현 대통령 후보자가 중심이 되어 선거를 이끌어 감으로 인하여 기존 김대중과 이미지에 혼동을 초래하였을 것도 추측할 수 있다.

그러면 이들의 정당지지 변동 패턴을 고찰하여 보자. 즉 전체 표본의 정당지지 패턴은 4회연속 동일정당 지지자가 11.3%, 3회 동일정당 지지자가 35.5%, 2회 동일정당 지지자가 25.9%, 그리고 지지정당을 매번 달리 바꾼 샘플은 27.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을 한번이라도 지지한 유권자중에서 4회연속 한나라당 지지자는 14.1%, 3회 한나라당지지자는 37.2%, 2회 한나라당 지지자는 28.6%, 한번 지지자는 20.2%를 점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의 경우는 4회연속 민주당 지지자는 4.8%에 불과하고, 3회 민주당 지지자는 40.7%, 2회 민주당 지지자는 31.2%, 한번 지지자는 23.3%를 점하고 있다.

〈표 9〉 정당지지변동 패턴

패 턴	N	%	한나라당	민주당
4회연속 동일정당지지	156	11.3	14.1	4.8
3회 동일정당지지	488	35.5	37.2	40.7
2회 동일정당지지	356	25.9	28.6	31.2
정당지지 변경	376	27.3	20.2	23.3

〈표 10〉 정당지지의 안정성(3회)

	(%)	
	한나라	민주당
적어도 한번지지	53.73	62.63
항상 동일정당지지	46.27	37.37
안정성 지수	1.16	1.68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3회 동일정당 지지자의 비율은 각각 37.2%, 40.7%로 4회 연속 지지자와 비교할 때 높은 편이다. 여기에서 정당지지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2002년 지방선거를 제외한 3회의 정당지지를 살펴보자.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00년 국회의원 총선거까지의 3회에 걸친 정당지지의 안정성을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3회만의 정당지지의 안정성 지수는 한나라당이 1.16, 민주당이 1.68로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지방선거를 포함한 4회의 조사결과를 포함한 경우의 안정성 지수와는 큰 대조를 이룬다.

그러면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3회연속 지지의 계속을 보인 유권자는 어떤 유권자들인가? 그들의 속성을 알아보기 위해 종속변수인 3회연속 동일정당 지지를 1, 기타를 0으로 처리하고, 독립변수로는 사회경제적 변수와 지방자치 만족도, 정치적 효능감,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그 외에 정당지지와 관계가 있는 이데올로기적 성향, 여야성향을 이용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1〉에는 정당지지의 안정성에 대한 경험분석의 결과가 소개되어 있다. 사회경제적 변수 가운데에는 거주지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이 양당 공히 발견되고 있다. 경상도 지역은 한나라당, 전라도 지역은 민주당에 강한 지지를 보내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곧 양 정당이 지역균열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아울러 한나라당과 민주당 공히 연령적으로는 연령이 높은 사람이 보다 정당지지에 안정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나라당 3회 연속지지자는 남자보다 여자 쪽이 보다 지지의 안정을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보다 안정된 지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민주당의 경우에는 지역, 연령 외에는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변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 정당지지의 안정성 요인

독립변수	한나라당	민주당
사회경제적 배경		
지역(경상도, 전라도)	1.083**	1.355**
도시규모	-.191	-.035
성별	.492*	-.193
연령	.313**	.391**
학력	.043	.261
소득	.166*	-.076
정치적 효능감		
내적효능감1	.426**	-.013
내적효능감2	-.298	-.038
내적효능감3	-.157	-.192
내적효능감4	-.070	.036
내적효능감5	.241	-.054
내적효능감6	-.174	.318*
대통령국정수행평가	.501**	-.225
진보-보수 성향	-.158	.217
여-야성향	.102	-.253
선호정당(한나라,민주)	2.874**	1.842**
선호강도	.137*	-.022
혐오정당		
민주당/한나라당	.243	.765**
자민련	.030	
상수	-7.369**	-3.995**
-2 Log Likelihood	585.885	501.108
Chi-Square(p)	345.145(.000)	232.470(.000)
적중률	87.9%	93.7%

*p<.05; **p<.01

또한 정당에 대한 지지는 정치적 불만족과 관계가 깊다(강원택 2002; 김영태 2002). 정치적 불만족의 한 차원으로서 정치적 효능감의 저하, 즉 정치적 자기불신이 높은 유권자일수록 의회내 정당을 지지하는 경향이 높으며, 반대로 정치적으로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유권자일수록 제3당에게 투표할 확률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즉, '정치적 자기불신'이 높아 내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는 유권자들은 투표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주의나 기타 다른 형태의 사회적 동원압력에 쉽게 흔들리게 되기 쉽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현 집권정당의 정책수행능력이나 대통령의 국정수행능력에 불만족을 느끼는 유권자중 기존 여당 지지자는 일종의 저항투표를, 그리고 기존 야당 지지자는 그 지지의 강화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도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분석해 보자. 한나라당에 3회 연속지지를 보인 유권자들은 정치적 효능감에서는 “정치인들은 나같은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대해 별로 관심이 없다”는 항목에 대해서만 효능감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타의 효능감 항목에 대해서는 영향력을 확인할 수 없다. 특히 2, 3, 4, 6의 항목에서는 부(-)의 반응을 보여 내적 효능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에 3회연속지지를 보낸 유권자들은 “투표는 아주 많은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내가 투표하는가 안하는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항목에 유의미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타의 항목에서는 역시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는 야당인 한나라당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이는 유권자들의 경우는 부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반면, 여당인 민주당에 계속적인 지지를 보이는 유권자는 긍정적인 평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그 영향력은 한나라당 지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지지자에게는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민주당에 지지계속을 보여온 유권자들은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여부에 관계없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지역주의의 동원압력에 처해 있음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지지에 관계가 있는 변수로 진보-보수의 이데올로기 성향과 여야성향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한나라당 지지계속자들은 민주당 지지계속자 보다 보수적이며, 민주당 지지계속자들은 상대적으로 진보적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념적 성향은 지지계속에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여야성향 또한 한나라 지지계속자는 야성향을, 그리고 민주당 지지계속자는 여성향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지지계속에는 영향을 미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정당태도를 알아보자. 우선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3회연속 지지를 보낸 유권자들은 뚜렷한 정당일체감을 가지며 이것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교체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여야성향과 관계없이 뚜렷하게 정당일체감을 가지고 안정적 지지를 보여온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호강도(強度)는 한나라당지지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이번에는

혐오정당, 즉 싫어하는 정당여부 변인을 투입하여 보았다. 분석결과 한나라당 지지자의 경우는 혐오정당의 변인이 한나라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민주당 지지에 안정을 보이는 유권자들은 혐오정당으로 한나라당을 들고 있으며 이것이 민주당의 안정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지역주의의 하나의 속성인 정당간 호감-거부도 차원에서 민주당 지지자가 한나라당에 대해 거부도가 강하다는 것에 기초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2) 정당지지의 안정성과 유동성 요인

이번에는 2002년 지방선거의 정당지지를 포함하여 정당지지의 안정성과 유동성을 비교 고찰해 보았다. 3회연속 동일정당을 지지해온 유권자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 지지정당을 변경하거나 지속한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특히 민주당 지지자의 경우 2000년 총선거까지는 3회 연속 민주당 지지자가 37.37%를 차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4회연속 지지자의 비율과 비교할 때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안정적 지지자가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이탈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먼저 1997년부터 2000년 총선거까지 연속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한 사람들은 2002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하였는가? 다음의 <표 1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22.2%가 타당으로 지지를 이탈하였으며 13.5%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서 모름 또는 무응답자들은 어떤 성향의 유권자들일까? 이들은 지역적으로는 서울(12.7%), 부산(26.6%), 대구(12.7%), 경남(27.8%) 등이 중심이 되고 있고, 김대중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는 잘함(19.0%), 못함(60.8%), 매우 못함(16.5%), 무응답(3.8%)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영남지역 또는 영남지역 출신으로 김대중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유권자들이라 할 수 있다.

<표 12> 한나라당 연속지지자(1997~2000)의 2002년 투표행태

한나라당	민주당	자민련	민노당	기권	모름/무응답
118(38.8%)	57(18.8%)	1(0.8%)	8(2.6%)	41(13.5%)	79(26.0%)

이어서 모름 또는 무응답자들의 정당일체감을 살펴보았다. 이들중 친밀하게 느끼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6명을 제외한 나머지 응답자중 70명(88.6%)이 한나라당을 친밀하게 느끼는 것으로 응답하였다. 결국 이들은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지지를 드러내지 않

은 유권자들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들을 포함하면 3회연속 한나라당 지지자의 약 60%정도가 지속적으로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한나라당을 이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2000년 총선거까지 3회 연속 한나라당 지지자중에서 2002년 선거에서의 지지정당별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독립변수로는 정당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효능감, 김대중정권에 대한 국정운영 평가, 이념성향, 여야성향, 선호정당과 거부정당, 그리고 사회경제적 배경변수를 투입하였다. 분석결과를 <표 13>과 같이 나타냈다. 분석결과 3회 연속 한나라당 지지자중에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을 계속지지한 사람들은 정치적 효능감 변수만이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효능감이 낮을수록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경상도 지역 거주자와 도시규모 면에서는 대도시 지역에서 한나라당을 지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3회연속 지지자의 2002년 지방선거 정당지지 모형

	2002지방 선거지지	정치적 효능감	DJ업무 평가	이념성향	여야성향 (여,야,중립)	선호정당 (한나라, 민주, 무당파)	거부정당	사회경제변수
3회 연속 한나라당 지지자	한나라	-.520*	-.098	.069	.348	-.638	.059	지역(경상)**
		.249	.301	.205	.690	.634	.390	도시규모**
		.594	.907	1.071	1.416	.528	1.061	
	민주당	.244	-.148	.132	-.214		8.005	지역(전라)
		.253	.293	.190	.841	상수(민주)	14.867	(상수)**
		1.276	.863	1.141	.807		2996.406	
3회 연속 민주당 지지자	기권	.484	.552	-.631**	-.456	-1.526	-.322	도시규모**
		.325	.371	.239	.538	1.186	.466	성별*
		1.623	1.737	.532	.634	.217	.725	교육*
	한나라	-.115	-.144	.461*	.552	-.574	.183	소득**
		.224	.297	.193	.506	.853	.829	도시규모**
		.892	.866	1.586	1.737	.563	1.201	학력*
3회 연속 민주당 지지자	민주당	-.170	-.412	.129	.397	-.001	.573	지역*
		.266	.353	.237	.595	.617	.458	도시규모**
		.844	.662	1.137	1.488	.999	1.773	학력*
	기권	.256	.022	-.564**	-.203	1.282*	-.553	
		.229	.316	.205	.482	.510	.419	도시규모**
		1.292	1.023	.569	.816	3.603	.575	

한편 3회연속 한나라당 지지자중에서 2002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으로 지지를 이탈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은 모두 지역적으로 전라도 지역 출신자였으며 선호정당이 모두 민주당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2002년 선거에서 기권을 한 사람은 이념적으로 보수적인 사람들이 기권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경제적 변수에서는 도시규모, 학력, 성별, 그리고 소득수준변수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지역규모는 군지역으로 갈수록, 교육수준은 학력이 높을수록, 성별로는 남성이,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이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1997년 대통령선거에서부터 2000년 총선거까지 민주당에 안정적 지지를 보인 자들 가운데 2002년 광역단체장 선거에서의 지지변화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타당으로의 지지이탈은 26%, 기권은 43% 등으로 나타나 지금까지 지지의 안정성을 보여준 사람들의 안정성이 크게 흔들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민주당 연속지지자들 중에서 모름 또는 무응답자들이 15.6%에 이르고 있다. 이들 유권자 성향을 살펴보았다. 이들은 지역적으로는 서울(35.0%), 전북(22.5%), 광주(20.0%), 인천(10.0%) 등으로 나타났으며, 김대중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매우잘함(10.0%), 잘함(60.0%), 못함(22.5%), 매우 못함(7.5%)로 나타나 대체로 김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는 70%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한편 정당일체감은 친밀감을 느끼는 정당으로 민주당(62.5%), 한나라당(10.0%), 민노당(2.5%), 무당파층(25.0%) 등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들은 주로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지지를 드러내지 않은 유권자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3회 연속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43%가 기권, 26.6%가 타당지지, 그리고 약 30% 정도가 민주당 지지를 계속적으로 보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표 14〉 민주당 연속지지자(1997~2000)의 2002년 투표행태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사회당	무소속	기권	모름/무응답
62(24.2%)	38(14.8%)	3(1.2%)	1(0.4%)	2(0.8%)	110(43.0%)	40(15.6%)

그러면 3회연속 민주당 지지자들 가운데 2002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으로 지지를 이탈한 유권자를 살펴보자. 2002년 한나라당을 지지한 유권자는 이념성향에서 진보적인 사람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회경제적으로는 도시규모에서는 대도시 출신, 학력은 저학력자, 지역적으로는 경상도 거주자가 한나라당으로 지지를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민주당 지지계속자는 사회경제적 변수중에서 도시규모와 학력변수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도시규모는 대도시에서, 학력수준은 수준이 높은 사람이 민주당에 지지계속을 보여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2002년 선거에서 기권을 한 유권자는 이념적으로 보수적이며 선호정당이 없는 무당파층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경제적으로는 도시 규모가 적은 지역 거주자가 기권한 것으로 나타났다.

V. 결 론

이 논문은 유권자의 정당지지를 분석할 때 지금까지와 같은 평면적 단순선호의 파악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정당지지의 구조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분석결과 정당지지의 경우 선택으로서의 지지와 선호의 표출로서의 지지로 나누어 볼 때, 선호의 표출은 지지의 성향과 지지의 강도에 따라 나누어 고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해 졌다. 우선 한국 유권자들의 정당지지의 성향은 복합성향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의 지지강도 또한 민주당이 가장 낮은 6.32를 나타냈으나 전반적으로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분석결과 정당 지지성향에 있어서는 복합성향의 유권자가 선거관심도가 높고, 투표결정 시기도 비교적 빨리 이루어지며, 정당지지의 안정성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정당지지의 강도에 따라 이념성향, 대통령 치적평가 등 정치적 태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투표참여와 지지정당 선택 등 투표행태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여 주었다. 결과적으로 정당지지에 대한 단순한 선호만이 아니라 보다 입체적으로 정당지지를 고찰할 때 유권자 투표행태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선행연구에서 전혀 다루어지지 않았던 정당지지의 안정성을 분석해 보았다. 4회 연속하여 정당지지의 안정성을 분석한 경우에는 안정성 지수가 낮게 나왔으나, 2002년 지방선거를 제외한 세 번의 선거에서의 정당지지는 상당히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3회연속 동일정당을 지지한 유권자들을 분석해 본 결과 정당지지의 안정성은 사회경제적 변수중 거주지역 변수가 한나라당과 민주당에 공히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연령 및 선호정당이 정당지지의 안정성을 설명하는 요인으로 양당 공히 지적되었다. 그러나 여야성향이나 이념정향은 특히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정당의 정당지지의 안정성은 지역균열에 의존하고 있으며, 여야성향이나 이념성향 등의 요인과는 거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의 투표행태 분석시 활용되어온 여야성향은 그 유용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오히려 한국의 정당지지는 지역이라는 균열구조에 기초하여 상당히 안정성을 보여주

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여야성향은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을 주장한다.

끝으로 이 논문의 한계를 지적하며 마무리 짓고자 한다. 지방선거와 국정선거를 같은 수준에서 비교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음을 인정한다. 아울러 2002년 지방선거에서 몇 개 지역에서 민주당은 후보공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정당지지의 안정성을 파악하는 데는 다소 한계가 있다. 그러나 2002년 지방선거를 제외한 세 번의 선거결과를 통해 안정성을 분석할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정당지지 연구의 미답영역을 메꾸고 새로운 문제 의식을 제기하였다는 점에서 이 연구의 의의가 절하될 수 없음을 밝힌다.

참고문헌

- 강원택. 2003. 『한국의 선거정치』, 서울: 푸른길.
- 강원택. 2002. “투표불참과 정치적 불만족,” 『한국정치학회보』 제36집 2호.
- 김만홍. 1996. 『한국정치의 재인식』, 서울: 풀빛.
- 김영태. 2002. “정치적 불만족과 유권자의 투표행태,” 진영재 편, 『한국의 선거 IV』, 서울: 사회과학데이터센터.
- 김재한. 1999. “한국의 이념성향과 선거정치,” 조중빈 편, 『한국의 선거 III』, 서울: 푸른길.
- 박찬욱. 1993. “제14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의 정당지지 분석,”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이남영. 1998. “유권자의 지역주의 성향과 투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푸른길.
- 조중빈. 1993. “유권자의 여야성향과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 서울: 나남.
- 황아란. 1998. “정당태도와 투표행태,” 이남영 편, 『한국의 선거 II』, 서울: 푸른길.
- Abramson, Paul R. and Charles W. Ostrom. 1991. “Macropartisanship: An Empirical Reassessment,” *APSR* 85: 181-192.
- Campbell, Angus, Philip E. Converse, Warren E. Miller, and Donal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David Knoke. 1990. *Political Networks: The Struc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noke, David. 1990. *Political Networks: The Structural Perspec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Lipset S. M. and S. Rokkan(eds.).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New York: Free Press, 1967).
- Morris Fiorina.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MacKuen, Michael B., Robert S. Erikson and James A. Stimson. 1989. “Macropartisanship,”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3: 1125-42.

- Nie Norman H., Sidney Verba and John R. Petrocik. 1979. *The Changing American Voter*, Cambridge: Harvard Univ Press.
- Stokes, Donald E., 1966. "Some Dynamic Elements of Contests for the Presidenc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52.
- Verba, Sidney and Norma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Harper & Row.

The Structure and Stability of Korean Voter's Party Identification

Lee, Hyunchool

Most research has not paid attention to the structure and stability of party identification(support) on Korean voting. Instead of analyzing party identity, Korean scholars have focused on the progovernment-opposition disposition as a functional equivalence to the party identification. This paper uses the 2002 Korean Local Election Survey data to investigate the structure of party support and its stability, and the determinants of stability of party support.

This analysis demonstrates that party support is need to be analyzed with a multitude of dimensions, such as preference, strength, stability. Als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voters' party identification is not related with progovernment-opposition disposition which is regarded as psychological predisposition to regulate political attitude and behavior on Korean voting. In conclusion, Korean voters have stable party identification based on the regional cleavage, accordingly the effectiveness of the existing progovernment-opposition disposition should be reevaluated.

Key Words : Party identification, Korean Local Election Survey, progovernment-opposition disposition